

때를 기다릴 것

주도적으로 한발 앞서 움직이는 것이 좋을 때도 분명 있다. 그러나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을 억지로 밀어붙여 끝이 좋은 경우는 별로 없다. 이런 이치를 특히 잘 이해하고 있는 다재다능한 너도밤나무. 아무리 뿌리가 겨울 내내 활동할 준비를 하고 있더라도, 봄의 새잎을 틔워내길 오랜 시간 고대하고 있더라도 나무는 때를 기다린다. 일조량이 최소 13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. 조금 따뜻해졌다고 선불리 잎을 틔운 나무들은 곧 후회하기 마련이니까. 해가 얼굴을 내미는 것 같아 샌들을 신고 나갔는데, 바로 구름 뒤에 숨어버려 발가락이 시려지는 것처럼.

리즈 마빈의 <나무처럼 살아간다> 중에서

리즈마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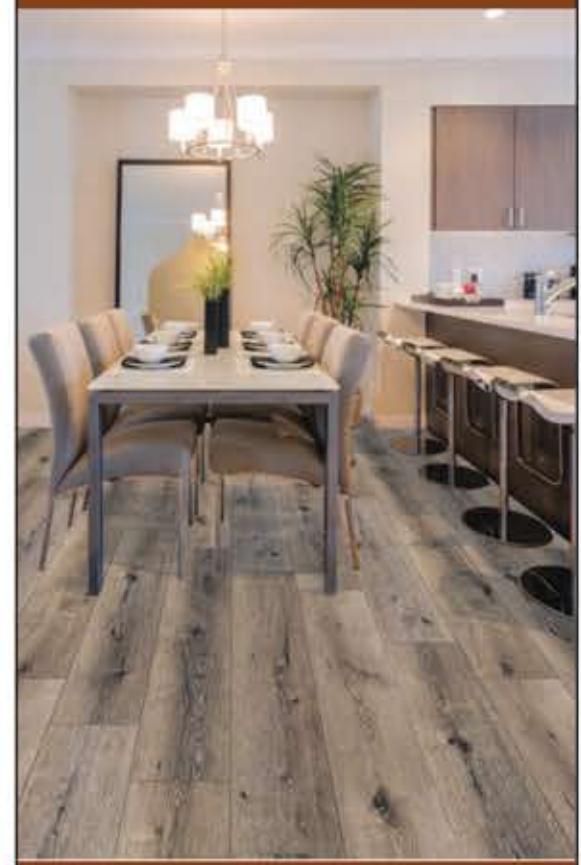
• 편집자겸 작가 • 저서: <실생활의 점성술Astrology Irl> 등

대림 마루

모든 비즈니스 상업용, 일반 주택, 신축건물 등등

최고급 정품 독점 디자인 제품

최저 가격 보장과 완벽 시공



특별세일

최고급 100% 방수 SPC

(제품을 꼭 확인하세요)

모든 제품은 품질보증서와 함께
Lifetime warranty를 드립니다.

무료견적 전화: 714.833.9944

12770 Florence Ave. Santa Fe Springs, CA 90670

신선하고 맛있는 한국직송 활어회 드시려
KUNI횟집으로 오세요!!



(714)752-6658

www.kunisashimi.com

7550 Orangethorpe Ave. E100,
Buena Park, CA 90621



KUNI
SASHIMI HOUSE

OPENING HOURS

Mon: Closed

Tue-Sat: 3PM-12AM

Sun: 3PM - 10:30PM